

농업유산 교육, 지역 애착심 향상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개발한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학교에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지역 애착심과 농업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발달해온 농업기술이 지닌 환경, 문화, 경제, 사회영역의 핵심가치를 청소년에게 이해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농진청은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학교 특성에 맞게 조

농진청, 전북 부안 하서중 등 3개 학교에 시범 적용 결과 애착도 1.95에서 2.16으로 10.8% 증가… 사회 호감 향상도

정해 5~11월 전남 완도 청산중학교, 구례 산동중학교와 전북 부안 하서중학교 등 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지역 애착도는 1.95에서 2.16(4점 척도)으로 10.8%가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호감도(1.96→2.24/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95→2.19/4점 척도), 이웃되기(1.77→1.97/4점 척도),

공동체심리(2.11→2.23/4점 척도) 수준이 향상됐다.

특히 자유학년제를 통해 2~3학년보다 다양한 주제 활동에 참여한 1학년생의 지역 애착도는 1.83에서 2.41(4점 척도)로 31.7% 크게 향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호감도(1.89→2.30/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74→2.56/4점 척도), 이웃되기(1.68→2.26/4점 척도),

공동체심리(2.09→2.52/4점 척도)에 대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은 “농업이 나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업분야에 능부 말고도 다양한 직업이 있었다”, “농업유산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농업 관련 지식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 인식, 진로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22개국 62개 지역을 통틀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주목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미래농업을 책임질 혁신적인 인재가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유산 교육이 청소년들이 농업을 더 잘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내달 2일 혁신도시 본사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대강당(새울림홀)에서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안전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다.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며, 국민 안전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유공자를 포함, 정부와 국회, 산업계 인사 등이 참석하며, 축하 퍼포먼스와 공연, 시민 릴레이 합창 영상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펼쳐진다.

행사 실황은 현장 밖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공사 유튜브 ‘인방TV’ 채널을 통해 같은 시각 원격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B위풍당당 증금리대출’ 신속 프로세스로 ‘큰 호응’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JB위풍당당 증금리대출’이 간편하고 신속한 프로세스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JB위풍당당 증금리대출’은 전북은행에서 10월 출시한 신상품으로 휴대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저장돼 있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짧은 시간 안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며, 실명확인, 서류제출, 대출 약정절차가 모두 모바일에서 진행된다.

상품 출시 후 지속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주말/휴일 대출실행 가능) ▲대출상당 전용 AI챗봇을 활용한 대출상담 진행으로 대출과정 중 궁금한 사항(상품, 금리, 신청프로세스 등)에 대해 즉각 안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현재 ‘JB위풍당당 증금리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인 핀다와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휴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쉽고, 편리하며, 위풍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신협운동 60년의 발자취

신협중앙회, 본·별책 발간… 10만원으로 시작해 자산 106조원대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 담아
별책에는 신협의 정신 담아… 본책에 전주 한지 사용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한국신협운동 60주년을 맞아 ‘한국신협운동 60년사’ 본책 및 별책을 각각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신협운동 태동 이후 올해까지 6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한국신협운동 60년사’는 본책과 별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년여간의 자료 수집 및 집필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발간된 별책 표지

특히, 신협의 7대 포용 금융 프로젝트의 중 하나인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개

발 지원한 ‘전주 한지’를 한국신협운동 60년사 본책에 사용, 지역 전통문화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섰다.

한국신협운동 60년사는 전주 한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KODIA)가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잇어워드(it-Award)에서 시작디자인북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돼 전통 한지 활성화 및 세계화 노력에 관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한국신협운동 60년사는 지금까지 한국의 신협운동이 이룬 성과에 대한 기록이자 서민의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얻은 교훈의 흔적”이라며 “신협의 가치를 60년이 아닌 100년이 넘게 뒀어 나가게 하겠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신협운동 60년사 별책 ‘온 마음으로 온 세상을 만들다’에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자 하는 신협의 정신을 담았다. 국민의 수혜국에서 아시아 신협 대표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한국 신협이 글로벌 신협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 세계 신협의 공동 발전에 앞장서는 모습을 담담히 그려냈다.

/김윤상 기자



24일 군산 GSCO에서 열린 SK컨소시엄 투자협약식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태원 SK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및 참석자들이 새만금에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300여개의 기업유치, 2만여명 고용창출 등 2조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기업 투자 새만금에서의 성공모델 ‘가능성’

SK컨소시엄, 새만금개발청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 동시 진행 370여개사 기업 유치·2만여명 누적 고용 창출 효과 예상

SK컨소시엄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00MW(메가와트) 사업권을 인센티브(투자혜택)로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정준 SK이앤에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6일 SK컨소시엄을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이후, 긴밀한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담보방안, 사업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사업내용은 SK컨소시엄이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와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전력공급인프라 포함)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추가 투자해 사

업을 확장한다는 것이 골자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도 병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과 SK컨소시엄은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담보증권(투자금액의 5%)을 제출하고, 수상태양광 착공, 창업클러스터 착공, 데이터센터(전력공급인프라) 용지 계약착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37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했다.

특히, 새만금의 전략산업이 기존의 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개발·보안, 사물인터넷(IoT), 컬러콘텐츠 창출 등 지능형·스마트 산업 분야로 확장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컨소시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맞춤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투자보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입주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데이터센터 등이 입주할 산업단지 5.6공구를 그린산단으로 조성해 지원하고, 관계기관의 공동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SK의 투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국경제에 큰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국가적 모델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은 이달 초 국내 최초로 SK브로드 밴드를 포함한 8개사가 글로벌 캠페인 RE100 가입을 신청했다”면서 “새만금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건립될 데이터센터가 SK그룹 RE100 실현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SK의 투자가 새만금에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매개로 글로벌 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호상 기자

성공 창업의 꿈, 나만의 사업 아이템으로

전북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2기 교육생 체험점포 입소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전주 신시가지 대신빌딩 1층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북 12기 교육생의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인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 점포체험교육, 창업전문가와의 1:1 전담 멘토링, 사업과 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원스톱(One-Stop) 창업 패키지 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 입점식 행사는 전북 12기 교육생 7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준비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을 비롯한 전북도 이종훈 일

자리정책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영주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교육생들과 소정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에 입소하는 사관학교 전북 12기 교육생은 7명으로 셀프 인테리어 컨설팅,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자동차 디테일 케어샵 등 특색있고 개성 넘치는 아이템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16주간 실제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판매전략, 고객응대 요령, 제품진열, 고객관리 등 성공 창업을 위한 실질 창업역량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체험점포 운영까지 마친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교육 결과와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김윤상 기자

동서도로,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연다

오늘부터 차량 통행 가능… 내부개발·투자유치 ‘가속도’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도로’가 개통돼 25일 12시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4일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 말미에는, 행사 참석자들이 동서도로 시점부터 약 3km 구간을 버스로 실제 주행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이중 16.5km는 새만금개발청이 건설했고, 나머지 3.8km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경 7공구 방수제사업으로 지난 2016년 완공했다.

새만금청이 건설한 16.5km는 지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국비 3,637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했다.

동서도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로, 내부 용지로의 접근로 역할을 해 개발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들어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돼 개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중국, 동남아 교역 시 물류수송 향상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이 돼 국제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은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전과는 한층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동서도로 개통은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이자,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내달 6·20일

‘일요일 건강검진’ 실시키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평일에 건강검진이 어려운 직장인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12월 6일, 12월 20일에 일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일요일건강검진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전 11시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5대암검진), 근로자신체검사(제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이 가능하다.

한편, 일요일검진은 평일에 미리 사전 예약 후에 일요일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예약문의는 전화(063-259-8900)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